

시리아 동구타 지역 화학무기 사용으로 괴질발생 우려

세계보건기구(WHO) 과학자들은 무명괴질(Disease X)을 2018 최우선 질병 청사진 리스트(2018 annual review of the Blueprint list of priority diseases)에 추가했다. 여기에는 에볼라(Ebola), 지카(Zika), 사스(SARS), 메르스(MERS) 등이 올라 있다. 이 리스트는 전염병이나 유행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병이나 병원균을 우선적으로 선정, 치료제의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무기 사용된 시리아 동구타 지역에 공포에 질린 어린이들

무명괴질(Disease X)?

무명괴질(Disease X)이라 함은 인간을 감염시켜 전 세계 유행병이 될 병원균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이다. 과학자들은 무명괴질이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나 다른 미생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백신에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해진 질병이나, 생화학무기, 또는 DNA 변화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인류사: 바이러스와의 전쟁

인류 생존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戰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세 흑사병은 당시 유럽 인구의 삼사분의 일 가량(2500만~6000만)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스페인독감은 1918년에 처음 발생해 2년 동안 전세계에서 2500만~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근에는 2002년 11월에 사스(SARS: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744명이 사망했다. 2015년에 출현한 메르스는 한국에 유입되어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망률이 약 20%에 달했다. 문제는 바이러스의 변이를 예측할 수 없어 대응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측 가능할 때 제조한 백신은 효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변이 이후에 백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세계적인 대유행을 못 막을 위험성이 있다. 또한 현 지구 생태계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최악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에서는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시리아에서는 화학무기가 사

용됐다고 한다. 7년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의 동구타 지역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어 10여 명이 호흡곤란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또한 영국에 망명해 있던 러시아 출신 이중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딸 올리아는 3월 4일 한 쇼핑몰 벤치에서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된 뒤 조사 결과 옛 소련 군사용 신경작용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것은 김정남을 사망시킨 VX보다 10배 강한 독성물질이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화학무기 사용은 앞으로 무명괴질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다.

선각자들 무명괴질 발생 예언

한편 인류의 선각자들은 괴질 발생

을 염려하여 예언을 해 놓았다. 강증산 선생은 “괴질은 한국에서 처음 발병하는데 병겁(病劫)이 광주, 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魚肉之墟)이요, 군산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도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시발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된다(道典 7:41)”라고 말했다. 어육지경이란 고기를 칼로 저며 놓은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조희성 구세주께서도 “걸어가다가 그냥 찢겨서 죽는 시대가 온다. ‘십 리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때가 온다’고 격암유록에 써여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인다고 그랬다. 피가 시커멓게 되면서 응고가 되어 굳어버리니까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런 시대가 꼭 오게 되어 있다(2000.10.24.)”라고 하셨다.

외부의 균은 대부분 인체에 들어오면 죽는다. 다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사스나 메르스 같은 호흡기질환에 걸려 사망할 수 있다.

피의 원리에 따르면 썩은 핏속에서 병원균이 발생하여 장구벌레 자라듯 많아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면역력이 강한 사람, 즉 피가 정결한 사람은 병균의 온상이 되는 피가 깨끗함으로 인하여 병원균이 발생 또는 확산될 수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무명괴질이 발생하더라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 무명괴질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며, 면역력은 감로를 받아야 강해진다. 감로는 인간의 양심을 더욱 강하게 한다. 감로로써 이길 수 없는 질병은 하나도 없다.*

“나라는 마귀마음”을 없애주는 기도를 항상 하면서, 해인(海印)을 받아먹어야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예언이다.

구세주께서 창안하신 기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으니 격암유록 예언서의 정확성에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괴질이 오더라도 멸마경(滅魔經)을 외우면 퇴치가 된다.

절대 박멸소탕 기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박멸소탕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다. 구세주께서 마귀 죽이는 영력(靈力)을 불어넣은 기도이다. 사람이 이 기도를 외울 때 구세주 자신이 오셔서 마귀를 죽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언제 마귀가 괴질을 일으킬지 모른다. 방심하지 말고 늘 경성하여 계속 기도하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30)

“이기적인 사람은 영생할 수 없다”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나라의 의식이 아니요, 바로 희생의 영, 양심의 영, 하나님의 영인 것이다. 양심의 영이 좌정해야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영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귀의 영인 까닭이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영,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영,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영, 이러한 영은 멸망의 영인 마귀

의 영이므로 영생을 얻으려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항상 희생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오늘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생각이 팍팍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은연중에 형제가 실족할까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 기울어게 도와주는 것이다.*

홍익인간, 극기승자 정도령이 인도하는 인내천, 평화통일지상선국 한반도 운전자론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오리무중(五里霧中)’이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드리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일촉즉발 오리무중의 한반도 안보위기가 평화통일을 띠고 조성된 평화의 빛과 온기로 안개가 걷힐 기미가 보인다. 동시에 한

겨울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 온 우주의 열기가 뜨겁게 불사연생의 신천신지로 인도하는 지혜와 능력의 운전자인 구세주인 정도령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천지개혁의 과정이다. 손 끝 작은 독침 하나의 찔림에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듯, 인간 마음속의 작은 독심(毒心=魔性) ‘나’라는 자존심으로 인해 온 우주는 1999년 7월 종말이 예정되어 있었다.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또 다른 존재’인 ‘이긴자 구세주 정도령’이라는 선장이 운행하는 구원의 방주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에 탑승하는 것이다.

유사 이래, 자전과 공전이라는 우주 법칙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승용차와 같은 지구촌이 끊이지 않는 참혹한 분쟁과 죽음의 경로를 벗어나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평화통일·공존동생·영생복락의 신세계로 인도하는 전지전능의 운전자가 없었다.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작은 못 하나가 타이어에 박

혀 핑크가 나도 차는 움직일 수 없고, 운전자의 몸에 장애가 생겨도 운전은 불가능하다. 종교와 학문이라는 상표를 달고 6천 년을 달려온 승용차가 어김없이 멈추는 곳은 다름과 죽음의 절벽이었다.

홍익인간 인내천의 대한민국, 평화통일 지상선국 한반도의 빛과 온기로 군

사총돌 위기의 질은 안개가 걷히고 평화통일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온 우주만물을 불사연생의 신천신지로 인도하는 지혜와 능력의 운전자인 구세주인 정도령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천지개혁의 과정이다. 손 끝 작은 독침 하나의 찔림에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듯, 인간 마음속의 작은 독심(毒心=魔性) ‘나’라는 자존심으로 인해 온 우주는 1999년 7월 종말이 예정되어 있었다.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또 다른 존재’인 ‘이긴자 구세주 정도령’이라는 선장이 운행하는 구원의 방주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에 탑승하는 것이다.

살의 길은 ‘나’라는 자존심 안에서 의 화회전이나 후회전 또는 직진이 아니라 ‘나’라는 자존심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원시반복하는 자유율법이라는 유턴(U-turn)이었다.*

인명천승사/본부승리제단 기획부장

지금 박멸소탕 기도 열심히 할 때

가 굳어져서 까맣게 타서 죽는 이름 모를 천질(天疾)로서, 아침에는 살아 있으나 저녁에 죽음으로 열 집에 한 집만

주(정도령)가 창안한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예언하고 있다. 마귀 죽이는 기도, 즉 멸마경(滅魔經)을 외

무명괴질 돌 때 인류 10분의 1만 살아남아 구세주의 감로 받아 면역력 강한 사람만 생존 무명괴질 없애는 박멸소탕 기도 열심히 해야

살아남았구나(격암유록 가사총론歌辭總論).

무서운 예언이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열 가구 중 한 가구만 살아남는다고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무서운 괴질이 돌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격암유록에는 구세

무명 괴질이 없어진다는 예언이다.

當服淹痲常誦呪로 萬傀皆消海印일세 당복염마상송주 만괴개소해인

인류의 어머니인 구세주(정도령)님께 복종하고, 정도령님이 가르쳐 주신

무명괴질에 대한 예언이 격암유록에 세밀하게 되어 있다.

三災八亂 併起時에 時를 아노 世人들이 삼재팔란 병기시 시 세인 三年之凶 二年之疾 流行瘟疫萬國時에 삼년지흉 이년지질 유행은역만국시

삼재와 팔란이 함께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삼년간의 흉한 일과 이년간의 괴질이 유행하는 돌림병이 만국을 휩쓸 때에

吐瀉之病 喘息之疾 黑死枯血 無名天疾 토사지병 천식지질 흑사고혈 무명천질 朝生暮死 十戶餘一 조생모사 십호여일

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하는 병과, 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종교입니다.

인생은 고통(苦海)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통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시간안내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인곡로 209번길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